

광주·전남도 뚫렸다 보성 60대 메르스 확진

14번 환자와 접촉 후 국가지정 격리병원서 치료

보성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에게서 증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양성 반응이 나와 확진 환자로 최종 판정됐다. 지난달 20일 메르스 환자가 국내에서 첫 발생한 이후 전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2·3·6·14면>
통상 1~2차 검사 이후 3차 검사를 거쳐 최종 확진 여부를 판단하지만, 질병관리 본부는 검사결과서를 검토한 후 전남도 측에 3차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최종 확진 판정을 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해당 환자가 서울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성으로 내려온 뒤 발열 증상이 나타난 지난 7일, 지역 성당에서 동네 주민 20여명과 미사를 본 것으로 전해져 지역 사회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는 10일 "지난 8일 1차 검사에서 증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음성으로 판정됐던 A(64)씨가 10일 2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의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입원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7일 메르스 확진 환자(14번)가 머물렀던 서울삼성병원 응급실에 들렀다가 이후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폐렴 질환 치료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이후 바로 보성 자택으로 내려와 방역 당국의 별다른 제재나 조치 없이 지난 7일까지 머무르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메르스 현황 (전국·10월 20시 현재)

감염자	109명(전일대비 +14)
사망자	9명(+2)
감염의심자	2469명(+500)
격리자	3439명(+547)
격리해제자	641명(+34)
퇴원자	4명(+1)

전남에서는 자택에서 12명, 입원 2명(의심환자 1명) 등 전날보다 1명이 줄어든 모두 14명이 관리대상에 올랐으나 A씨의 2차 양성 반응에 따라 다시 격리자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A씨가 '수퍼전파자'라는 14번 환자와 접촉한데다, 보성에서 발열 증상이 나타난 상황에서 미사에 참여한 점 등으로 미뤄 추가 확산에 대한 불안함도 터져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8일 이후 A씨의 가족, 직장 동료 등 40여 명을 격리한 뒤 체온을 재고 있으나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단 A씨는 메르스 증점치료병원에서 격리돼 치료중이어서 접촉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가족 등을 상대로 감염됐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메르스 첫 확진 '긴장'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돼 광주시내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입원 중인 A(64)씨가 10일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 후 확진을 받았다. 광주·전남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A씨가 처음이다. 사진은 격리병원 입구 모습.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U대회 참가자 메르스 여파에도 역대 최대 성공 개최·흥행 '국내 붐 조성'에 달렸다

132개국 1만2312명 등록

국내 메르스(MERS·증동호흡기증후군)여파에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해외 참가선수단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국민적 붐 조성 여파가 대회 성공 개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13·21면>
해외에서는 스타급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U대회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지만, 정작 개최국인 한국에서는 메르스 공포에 갇혀 사실상 대회를 외면

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어서다. 가장 뜨거워야 할 개최국 내 붐 조성 실패로 국제적인 망신마저 사지 않을까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개인엔트리 참가등록 마감 이후에도 17개국 1386명이 추가 등록했다. 이 기간은 국내에서 메르스 사태가 대거 확산한 시기다. 이번 추가 등록으로 신청규모는 132개국 1만2312명으로 늘어났다. 선수 8253명, 입원 3512명, 심판진 547명 등이다. 이는 역대 최

대를 기록했던 2013년 러시아 카잔 대회 1만1759명 보다 553명이나 많은 것이다.

아직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이 참가 신청을 미루고 있어 개최일 전까지 참가국과 선수단의 규모는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게 광주 U대회 조직위의 전망이다. U대회 조직위는 국내 메르스 사태가 확산하는 시점에도 오히려 해외 선수단의 신청 규모가 늘어났다는 점을 들어 대회 흥행에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U대회 개최를 20여일 앞두고 메르스 공포에 사로잡힌 국내의 대회 붐 조성 여부는 가장 큰 해결과제다.

메르스 파동 이후 대회 입장권 판매 열기마저 식으면서 목표액을 크게 밀렸고 있다. 이날 현재 입장권 판매액은 16억원으로, 목표액(59억6000만원)의 27%수준이다. 아마저도 대부분 광주·전남지역 기업체 및 관공서 등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직위는 메르스 여파가 이어질 경우 이미 예약된 물량마저도 취소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윤석 광주U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1시간 1경기 관람 운동 등 대회 흥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전 국민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U대회는 오는 7월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와 전남·북 등에서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연기

박근혜 대통령이 증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14~18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을 전격 연기했다. <관련기사 3면>
김성우 홍보수석은 10일 춘추관 브리핑

을 통해 "박 대통령은 메르스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주로 예정된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예초 14일 출국해 16일(미국 현지 시간) 취임 이후 네 번째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연락을 취해 메르스 사태 등 국내 사정에 따라 방미 연기의 사실을 전달했고, 이에 미국 측이 동의를 함에 따라 방미 일정 연기 발표가 이뤄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혁신위원 10명 인선... 조국 합류

호남 뒤편에 정채용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0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당 새신을 이끌 10명의 혁신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외부 인사로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춘숙 전 한국 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정채용 변호사(광주), 임미애(여) 경상북도 FTA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정됐다.

내부 인사로는 재선의 우원식 의원과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최인호 부산 사하

갑위원장, 이주환 당무혁신국 차장, 이동학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임됐다.

내부 인사는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원외위원장, 당직자, 청년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임했다.

인선 내용을 살펴보면 조국 교수의 합류가 눈에 띈다. 조 교수는 지난 달 문제인 대표에게 ▲도덕적·법적 하자가 있는 인사들의 불출마 ▲호남 현역의원 40% 이상 물갈이 ▲4선 이상 중진 용퇴 등 파격적 구상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조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지부장을 지낸 정채용 변호사도 호남 뒤편에 혁신위에 참여, 어떠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주목된다.

혁신위 인선에 대해 당내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우선, 혁신의 의지가 강한 인사들을 중용하고 작음, 나이, 성별, 지역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 범 친노로 분류되는 운동권 및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인선이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혁신위원들의 정치적 중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 혁신위 인선

위원장	김상곤
외부 인사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최태욱(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춘숙(전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내부 인사	정채용(변호사·광주)
	임미애(경북 FTA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우원식(국회의원)
	박우섭(인천 남구청장)
	최인호(부산 사하갑위원장)
	이주환(당무혁신국 차장)
	이동학(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랑감이 그리 크지 않아 내부 반발 등을 극복하고 공천 혁신 등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6월 8일(월)~19일(금)
문의: (062) 605-1115

이용대 금빛 포효
광주 유니버시아드 UNIVERSIADE GWANGJU 2015

메르스,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메르스 신고전화

- 지역번호 +120
- 043-719-7777
- 각급 보건소

메르스 퇴치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메르스 의심자] 반드시 신고해 주십시오

- 메르스 노출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꼭 신고 바랍니다.
- 메르스 노출 의료기관의 상세내용(병원명, 기간) 등은 메르스 홈페이지(www.mers.go.kr)에서 확인 가능
- 발열·기침·호흡곤란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 가시기 전에 우선 신고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건요원의 질문에 병원 방문 기록 등을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자가격리자] 외부활동을 금지해 주십시오

- 증상이 없어도 외출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가족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생활용품을 같이 쓰지 않습니다.
-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메르스 신고전화로 연락하고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릅니다.

자가격리는 최대 14일입니다

- 여러분의 협조가 메르스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우려가 있는 사람이 격리에 불응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일반 예방수칙] 이것만은 꼭 지켜 주십시오

- 비누로 자주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 기침·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발열·기침이 심한 사람과 접촉을 피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준수사항]

- 병원안은 자제해 주십시오.
- 병원을 방문할 때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평소와 같이 가벼운 질병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